

# 아프가니스탄 주간정세 동향[11.20~11.26]

2022.11.28.[월],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 동 자료는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의 일일 미디어 모니터링’ 자료를 기초로 작성  
(아프간 현지 및 국제 언론보도)

## 1 정무/대외관계

- 아프간 동결자금 관련 스위스 아프간 구호재단, 첫 이사회 모임 개최 (11.22, Reuters, 11.23, ToloNews)
  - 아프간 동결자금 35억불이 예치된 스위스 아프간 구호재단 이사회는 11.22 제네바에서 첫 이사회 모임을 개최한바, △아프간인 공동의장 임명, △아프간 자문위원회 설립, △수익 창출을 위한 투자처 모색,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 통제(compliance control) 개발에 합의함.
  - 이사회는 Alexandra Baumann 스위스 외교부 국장, Scott Miller 주스위스 미국대사, Anwar ul-Hqa Ahadi 전 아프간 중앙은행 총재, Shah Mirabi 미국 학자 겸 전 아프간 대통령 자문관으로 구성
- 탈레반, 예배시간 기도 주제 및 내용 제한(11.21, Hasht-e-Subh Daily)
  - Enamullah Samangani 탈레반 정부언론정보센터(GMIC, Government Media and Information Center)장은 11.20 트위터를 통해 종교부의 발표를 인용, 금요일 예배시간의 기도 주제와 내용을 탈레반의 뜻과 합치하는 내용으로 한정한다고 발표하면서, 종교계 인사들이 탈레반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아프간 단합을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탈레반의 뜻과 합치된 내용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최고지도자의 이슬람 율법에 따른 형법 집행 지시 이후 첫 집행(11.24, AFP, UK Daily Mail)

- Akhundzada 최고지도자가 사법부에 이슬람 율법에 따라 형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한 이후, 법원이 이에 근거한 첫 형벌을 집행한바, 로가르주에서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명으로 14인(남 11명, 여 3명)에게 채찍질을 최대 39회씩을 가함. 로가르주 당국은 채찍질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시행되진 않았다고 설명함.

□ 탈레반, 언론자유연합의 아프간 제명에 유감스럽다고 반응(11.20, ArianaNews)

- 언론자유연합(MFC)는 탈레반의 언론탄압을 사유로 아프간을 회원국에서 제명(11.18)한다고 발표했던바, 탈레반 정보문화부는 이를 유감스러운(regrettable) 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아프간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언론매체를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함.

□ 탈레반, 민족단합 위한 국가적 담화(national dialogue) 개최 가능성 일축(11.21, ToloNews)

- 전 아프간 정부 소속 주요 정치인사 및 국제사회는 현재 정치적·민족적인 사유로 소외된 자들을 포함한 국가적 담화(national dialogue)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Karimi 탈레반 부대변인은 아프간은 정치적·민족적·종교적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으며, 탈레반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국가적 담화 개최 가능성을 일축함.

□ 푸틴, CSTO 정례회의서 대테러 대응위한 아프간 안보강화 필요성 언급(11.25, ArianaNews)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23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집단안전

보장기구(CSTO) 정례회의에서 테러단체들이 CSTO 국가들의 영토로 침투할 위협이 여전히 높으며, 아프간의 안보상황이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함. 푸틴은 지난 아프간에 관한 모스크바 회의(!1.16)는 아프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시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대테러 대응과 아프간 안보 강화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포용적 정부 구성을 지원하기 위함이 주목적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다자간 메커니즘의 틀 안에서 아프간의 안정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임.

□ UN, 탈레반 향해 여성권리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이행 촉구(11.26, Salam Watandar 등)

- 유엔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25)’을 맞아 탈레반을 향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권리 탄압을 중단하고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바, Otunbayeva UNAMA 대표는 특히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간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되거나 폐지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아프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발표함.

□ 헤이그, 네덜란드의 2007년 아프간 폭격에 따른 민간 피해자 배상 판결 (11.23, Reuters, NL Times)

- 헤이그 법원이 2007년 6월 네덜란드가 아프간 Chora 계곡 전투 중 민간인 주거지역을 폭격하며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네덜란드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 해당 심판은 약 2년 전 네덜란드 국방부가 동 폭격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참전군인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 요청

□ 낭가하르주 IS 요원 4명 체포(11.20, Killid Group)

- 낭가하르주 정보군이 당국 Chaparhar지역에서 IS 요원 4명을 체포하였으며,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소형무기를 압수하였다고 발표함.

## □ 아프간 내 테러 동향(언론보도 종합)

- (카불) 11.21 승용차에 부착된 폭발물 폭발로 사망자 2명 발생하였으며, 사망자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고, 공격을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 또한 없음.
- (쿠나르주) 11.26 Barkandi지역 도로에서 폭발물이 터져 민간인 부상자 3명이 발생하였으며, 공격을 주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 없음.

## 2 경제/인도적 지원

---

### □ Baradar 제2부총리, 제6회 중국-남아시아 엑스포 개막식 연설에서 중국은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발언(11.21, Ariana News)

- 제6회 중국-남아시아 엑스포 개막식(11.19)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Baradar 탈레반 제2부총리는 중국은 아프간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과도한 (destructive) 정치의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평가함.
- 또한 Baradar는 아프간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간 안전한 운송을 진행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설명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아프간 투자를 촉구함.

### □ UNICEF, 2022 인도주의적 지원금 중 46%만 공여되었다고 발표 (11.21, ToloNews)

- UNICEF는 2022년도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요청했던 지원금 20억불 중 46%만이 공여되었다고 발표함. 현재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 2,440만명 중 아동은 1,310만명으로 집계되며,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아동 110만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명함.

□ 국제사회 對아프간 공여 및 지원 동향(언론보도 종합)

- (독일) WFP, UNDP를 통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9천만 유로 공여를 발표함(11.23).
- (UNHCR) 아가칸개발네트워크(Aga Khan Development Network)의 아프간 마이크로파이낸스 은행(FMFB-A)와 공동으로 소규모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Grants and Microfinance(GRAM)' 계획을 발표함.
  - 국내 실향민, 여성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카불, 발흐주, 바미안주, 헤라트주, 낭가하르주에서 우선 실시하며, FMFB-A 지점이 있는 타지역으로 확대할 예정
- (UNICEF) 동절기 대비 11만 이상 가구에 현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11.21), 정확한 지원금 등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음.
- (WHO) 91개 지역 301개 보건시설에 의료품 693톤을 지원함. 끝.